# 광주 시니어 복지시설 '가정의 달' 다양한 프로그램

## 효령노인복지타운·빛고을노인타운·서구노인복지관 정상운영

## 어버이날 기념 '사랑해효, 고마워효'·'5180보 플로깅' 등 행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시 시니어 복지시설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월부터 개점휴업상태였던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은 다음달 2일 정상 운영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오는 6일 어버이날 행사 '사랑해효, 고마워효'를 진행, 서미숙 강사의 노래교실을 비롯해 초청공연, 장기자랑 등을 즐기며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할 예정이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은 '5180보 플로깅', '1·3세대 에코플로깅' 등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거리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는 프로그램이다.

5180보 플로깅은 5·18 42주년을 기념해 진행된다. 한달 동안 5180걸음을 걷고 인증샷을 찍어 보내면 선물을 제공한다. 9일 진행되는 1·3세대 에코플로깅에서는 광주북초 학생들과 노인일자리 참가자들이 함께 효령천을 걷고 쓰레기를 줍는다.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도 6일 광주시가 주관하는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버스를 타고 빛고을시민문화관에 모여 기념식과 문화 공연을 즐길 예정이다.

효령노인복지타운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오는 6월 2일 동시에 개장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이들 타운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부터 프로그램을 전면 중지했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지난 4월부터 파크골프, 게이트볼, 당구 등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으며, 다음달에는 본격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프로그램은 건강치유마사지, 국선도, 노인심리상담사 강의, 댄스스포츠, 도자기, 동영상 제작 등이 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도 검도, 건강댄스, 게이트볼, 당구, 문인화, 미디어 영상편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동 준비를 마쳤다.

개장 이후 프로그램은 오는 17일부터 앱과 타운 내 키오스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도 6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서구노인복지관은 '어버이의 은혜 다시, 봄'을 슬로건으로 걸고 복지관을 방문하는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준다.

또 '호남대학교와 함께하는 네일아트 및 손마사지 체험'을 비롯해 비누만들기 체험, 전통 놀이, 영화 상영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세계 방방곡곡으로 '랜선 효도여행'을 떠나고 어르신 개개인의 사진을 촬영, 인화해 주는 '웰컴투 서구 하와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남대 후문 버스정류장 설치 일회용컵 전용 수거 시범 운영

플라스틱·종이 등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컵을 수거하는 전용 수거함<사진>이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 거리에 설치됐다.

3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최근 북구의 가장 번화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전대 후문 버스정류장 주변에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수거함은 음료와 컵을 수거하는 공간으로 분리돼 있다.

코로나19로 일회용컵 사용이 증가한 데다 여름철을 앞두고 일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참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북구는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이 쓰레기 투기도 막고 자원 재활용에도 보탬이 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일회용컵을 즐겨 쓰는 젊은이들의 호응을 이끌기 위해 전대 후문을 택했다.

북구 관계자는 "광주에서는 처음 설치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대학생 등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범 운영을 거쳐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지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베이비부머~Z세대 학생 일상 "요즘 아이들이 훨씬 힘들어요"

## 초록우산재단 아동행복지수

세대별로 자신의 학창 시절을 평가했을 때, 기성세대 때보다 이른바 '요즘 아이들'이 더 행복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 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2022 아동행복지수'에 따르면 과거와 비교해 현재 고등학생의 일상 속 균형은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은 아이들의 일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 고등학생과 지금은 성인이 된 20~60대를 상대로, 세대 별로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일상 속 주요 4개 영역별(수면·공부·운동·미디어) 권장 시간 충족 비율을 조사했다.

세대 구분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4년생),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X세대(1975~1984년생), Y밀레니얼세대(1985~1996년생), Z세대(1997~2010년대 초반) 등이다.

조사 결과, 소위 기성세대로 분류되는 1·2차 베이비부머 및 X세대보다 Y·Z세대와 현재 고등학생 집단에서 일상 균형 보장 수준이 '하(下)'에 해당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면, 기성세대는 1차 베이비부머(69.4%·133명)·2차 베이비부머(81.4%·211명)·X세대(72.5%·193명)로 평균 74.4%였다. 반면, Y세대(88.6%·149명)·Z세대(91.0%·91명)·현재 고등학생(91.0%·570명) 등 신세대는 평균 90.2%가 일상 균형 '하'로 분류됐다.

현대 사회에서 성인들이 노동 등으로 치열한 하루를 보내는 만큼, 아이들도 공부에 시달리며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어른 1000명과 아이들 2210명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비교한 결과 수면·식사·개인위생·노동(어른)·공부(학생) 등 필수적인 행위에 쓰는 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은 아이들이 더 적었다.

요즘 아이들의 하루 평균 자유시간은 5시간 19분으로, 성인(6시간 44분)보다 1시간 25분 짧았다. 자유시간이 부족한 '시간 빈곤'에 해당하는 비율은 성인(18.8%)과 아동(17.9%)이 비슷했다. /연합뉴스

# NO 케이블카, NO 산악열차…무등산 지키기 서명운동

올 봄 출범한 '국립공원 무등산지키기 시민연대'는 무등산 일원에서 이달 말까지 '무등산 정상복원, 무등산 군부대 이전, NO 케이블카, NO 산악열차, NO 산악도로' 등을 위한 '국립공원 무등산 지키기 거리 서명운동'을 벌인다. 서명 결과는 6·1지방선거 이후 광주시장 인수위원회에 전달한다. 사진은 지난 30일 문빈정사 앞에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모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 하천점용료 25%감면…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코로나19로 매출 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하천점용료 25%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조치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이번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법'에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이 작용됐다.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시켜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동구 여성 10명 중 9명 "기후위기 심각하다"

## 여성친화도시 의제발굴단 설문

광주시 동구에 거주하는 여성 10명 중 9명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기후위기 관련 교육 정책' 등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의제발굴단'은 '제52회 지구의 날(4월 22일)' 즈음해 여성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여성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여성친화도시 의제 발굴단은 정책발굴을 위한 시민 참여단으로 기후위기 정책 발굴 등을 위해 지난달 21~23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율이 61.11%, '심각'하다는 31.82%으로 나타났다.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응답자들은 ▲일회용품 줄이기(28.54%) ▲에너지 절약(17.17%) ▲먹을 만큼 음식 조리(16.41%) ▲친환경 물건 이용(15.15%) ▲대중교통 이용(14.9%)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환경부, 어린이날 기념 다채로운 환경보건 행사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환경부가 3차원 가상공간(메타버스)을 도입해 다채로운 환경 보건행사를 개최한다.

3일 환경부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오는 8일까지 "애들아! 건강하고 안전하게 놀자!"라는 주제로 어린이 환경보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차원 가상공간(메타버스) 방식을 도입해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가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영상 시청, 온라인 게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메타버스 어린이 환경보건 학교'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주소(metaverseschool.modoo.at)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 | |
|---|---|
| 광주 |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
| |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
| |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
| |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
| |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
| |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
| |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
| 전남 |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
| |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
| |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
| |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
| 시외 |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
| |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

010-6670-9800